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등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채, 공사채 및 통안채 등 각 채권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자산배분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금리의 변동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듀레이션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운용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의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673억 원

펀드유형 채권형
- 채권 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4년 01월 02일)

- 클래스 C : 2007년 02월 28일

- 클래스 C-F : 2007년 02월 07일

벤치마크 BP국고채 0~10년 70% + KBP특수채 0~10년 20% + KBP은행채AAA이상 0~5년 10% 90% + KBP Call 지수 10%

신탁업자 HSBC(수탁사)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3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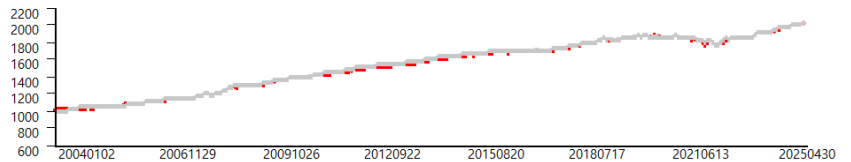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94%	1.58%	3.17%	6.50%	9.91%	12.87%	9.90%	102.90%
클래스 C	0.89%	1.42%	2.84%	5.81%	8.50%	10.71%	6.40%	63.24%
클래스 C-F	0.92%	1.51%	3.04%	6.22%	9.35%	12.00%	8.48%	74.11%
벤치마크	0.92%	1.54%	3.09%	6.32%	9.69%	12.61%	9.87%	103.0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판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4월말 기준)

<전체>



<채권 종류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4월말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국고채권03500-3406(24-5)	9.5	한국가스공사471	3.8
국고03250-3306(23-5)	5.2	국고02375-2812(18-10)	3.8
국고채권01375-3006(20-4)	4.5	신한은행27-12-이-1.5-A	3.8
국고03250-2706(24-4)	3.9	산금23신이0200-0718-1	3.8
한국철도공사224	3.8	국고02000-3106(21-5)	3.7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65% (판매 0.43%)
- 클래스 C-F : 총 연 0.26% (판매 0.04%)
- 클래스 C-W : 총 연 0.22% (판매 0%)

(공통사항)

운용 0.1875%,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4월 시장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되었습니다. 국고채 시장은 월 초 현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금리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로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금통위의 금리 인하 기대도 강화되었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으나,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시사되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로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 속 시장은 강세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지속이 국고채 금리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28.8bp 하락한 2.272%, 10년 금리는 19.7bp 하락한 2.570%로 마감했습니다.

월 중 국내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펀드 듀레이션을 벤치마크 대비 100%~107%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확대 운용하였으며 듀레이션 전략은 BM 대비 소폭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는 월 중 확대되는 모습 보였으나 월 후반 장기물 상대적 강세 보였으며, O/W 7~10년 구간이 월 후반 BM 대비 (+) 성과를 보이며 커브 전략은 BM 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섹터의 경우 중립 수준 성과를 보였으며, 종목 선택 전략의 경우 2~3년 구간 회사채 종목이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는 미국 관세 부과 등을 반영하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2.25% 수준을 선반영하여 전 구간 역캐리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인하 경로, 실물 지표 둔화 수준, 심리 위축이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 시차 등을 확인하며, 인하 사이클 최종 금리 수준과 속도를 가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국고채 금리는 현재의 최종금리가 현재 선 반영된 수준보다 더 낮아질 것인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국 금리를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가격 부담 속 등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리는 하락 속도가 조절될 수 있겠으나, 결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와 경기 부진 심화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 공약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성과 국채 수급 이슈는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고3년 2.20~2.40%, 국고10년 2.45~2.70% 전망하며, 듀레이션은 중립 이상 유지, 변동성으로 금리 레인지 상단 접근 시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예측 불가능한 정책 흐름 속 시장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 자산 신뢰도 저하가 텀 프리미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QT 축소, 재무부 바이백, SLR 규제 완화 등 금리 안정화 조치가 병행될 수 있으나, 재정수지 개선 없이는 미 장기물 금리 하락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도 해당 흐름 반영하여 박스권 내 커브 스티프닝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는 관세 부과에 따른 실물 지표 둔화가 장기물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선 과정에서 추경 논의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국내 수급 이슈로 시장 초점이 점차 이동하며, 이에 월말 갈수록 커브는 스티프닝 압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 10-3년 스프레드 20~45bp, 국고 30-10년 스프레드 -20~-5bp 전망하며, 스티프닝 전략 유지하나 박스권 상단 접근 시 중립 수준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크레딧 시장은 5월 금통위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공사채·은행채 역캐리 해소와 회사채·여전채 캐리 확보 수요에 크레딧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레벨 부담과 비우호적인 회사채 정기평정 등의 영향으로 강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행 시장은 3월(수요예측 참여 수요 모집 2.94배)과 4월(수요예측 참여 수요 모집 3.04배)에 이어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말 갈수록 6월 대선을 앞두고 추경 논의 내용에 따라 중장기 구간 크레딧 금리는 국고 시장에 연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 구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국고 3y Spread 15~25bp, 은행/국고 3y Spread 20~30bp, 회사 AA-/국고 3y Spread 50~60bp 전망하며, 선별된 중목 위주로 BM대비 확대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